

“레이싱 DNA와 럭셔리…압도적 우월감 만끽하세요”



“이탈리아 문화와 마세라티만의 차별화된 럭셔리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마세라티 광주전시장은 전국 10개 공식 전시장 중 한 곳이다. 이 곳은 마세라티만의 이탈리아 감성과 품격, 럭셔리와 스포티함 사이의 조화로운 균형을 선사하는 모델 라인업을 갖추고,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의 콘셉트는 이탈리아와 럭셔리다. 광주전시장은 마세라티 정책에 따라 매출액의 1%를 마케팅에 활용, 고급화 전략을 펴고 있다.

이주영(37) 광주지점장은 “서울·수도권 중심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광주만의 특화된 마케팅으로 전환했다”며 “VIP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하고 차별화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소수의 고객과 함께 하는 소규모 랠리 시승행사가 대표적이다. 정밀한 핸들링과 가속이 가능한 도로를 따라 럭셔리 힐링명소로 떠오른 여수의 명품 리조트를 돌아오는 시승 코스는ダイナ미한 주행 감성과 럭셔리한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리조트에서는 시승행사와 별도로 젊은 고객을 초청해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풀 사이드 파티도 진행한다.

고객행사는 성별·연령별로 특성화해 진행하는 점도 눈에 띈다. 광주 전체 구매고객 중 30%를 차지하며 비중을 늘려가는 여성 고객들은 이탈리아 감성이 담긴 레스토랑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매출액 1% 마케팅 활용, 마세라티만의 고급화 전략

소규모 랠리 시승행사 등 잠재고객 대상 차별화 서비스 제공

이주영 광주지점장 “광주만의 특화된 마케팅으로 전환”

만찬 행사, 샬레데 특별상영관에서 VIP 품격과 안락함이 느껴지는 영화 관람 등 이벤트를 누릴 수 있다.

여성고객 오토만을 위한 골프행사도 마련했다. 라운딩 참가 조건은 마세라티 오너이면서 마세라티를 직접 타고 와야만 가능하다.

여성 오토만 참가하다보니 ‘나만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참가비는 내야하지만 전액 고객명으로 기부하는 덕에 ‘나눔의 기쁨’도 나눌 수 있다.

최연소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 지점장은 “마세라티는 아무나 탈 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며 “고객에게 자존감을 주는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마세라티를 찾는 고객은 대중화된 수입차 시장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남다른 맛과 희소 가치를 중요한 선택 요인으로 꼽는다.

마세라티의 ‘차별성’과 ‘희소성’이 독일 3사 브랜드를 경험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마세라티 구매한 고객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독일 3사(벤츠·아우디·BMW) 브랜드의 차량을 보유했던 소비자가 약 60%를 차지했다. 2~3차레 독일차를 탄 뒤 나만의 품격과 맛, 가치를 높이려는 고객이 마세라티에 관심을 갖는다는 분석이다.

이 지점장은 “그래서 독일차의 독주를 내심 비판

다”고 했다. 그들이 잠재 고객인 까닭이다.

마세라티는 디자인과 컬러감이 독보적이다. 감각적인 바디라인, 언제나 카피의 대상이 되는 유려한 프론트·리어 디자인, 같은 붉은색이어도 오묘하고 매혹적으로 표현해내는 차체 컬러감 등은 패션과 맛의 나라인 이탈리아의 오랜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결과물이다.

또 마세라티에는 디테일이 살아있다. 최고급 에르메네젤로 제나 가죽으로 한뼘 한뼘 핸드메이드로 마감되는 스티치는 바로 이탈리아 장인정신의 정수다.

배기음마저도 예술이다. 성악의 거장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사랑한 마세라티의 배기음은 소음이라 여겨지던 배기음조차 감미로운 도로 위의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이탈리아 특유의 감각이다.

마세라티에는 이탈리아 문화가 담겨있지만 자동차의 본질인 ‘질주 본능’을 잊지 않았다.

1900년대 초부터 레이싱 대회를 휩쓸며 레이싱 강국의 입지를 다져온 이탈리아와 그 한 축을 담당하는 마세라티. 세단에서도 그 레이싱 DNA는 유지되고 있다.

이 지점장은 “독일 스포츠카는 디자인을 예쁘게 만든 세단에 불과하다”며 “마세라티는 스포츠카 혈통을 계승한 세단으로 세단의 편안함과 스포츠카의 성능·속도감으로 장거리 여행때 그 재미를 만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마세라티 광주전시장에서 이주영 지점장이 대표 차종인 기블리와 르반떼를 자랑하며 활짝 웃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탈리안 감성 ‘마세라티 르반떼’ 실용성·스타일 모두 만족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전성시대다. 레저가 일상이 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가을이다. 레저의 계절이다. 야외 활동에 적합한 SUV가 눈길을 끈다. 마세라티 르반떼는 지난 2016년 첫 출시 이후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 새로워진 르반떼는 섬세한 디자인 변화와 실용성 등 이탈리아 감성을 가득 품고 돌아왔다.

◇SUV 세그먼트에 스며든 이탈리아 감성

최첨단 전용 생산라인을 보유한 이탈리아 토리노의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르반떼는 감각적인 쿠페형 디자인을 갖추면서도 5인이 탑승 가능한 넉넉한 실내 공간을 살렸다.

전면 그릴에 자동차 에어 셔터를 적용해 기술적 정교함과 공기역학을 최적화한 디자인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0.31 공기저항계수를 자랑한다.

내부는 손바느질로 마감한 가죽시트와 대시보드 사이드패널을 적용해 동급 최고의 럭셔리함을 지녔다. 대시보드와 중앙 콘솔에는 8.4인치 마세라티 터치 컨트롤 플러스(MTC+)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모드 조작 버튼, 사용자 편의를 강조한 알루미늄 회전 노브, 에어 서스펜션 스위치가 장착돼 있다.

감성도 놓치지 않았다. 르반떼 그란루소 실내에는 에르메네젤로 제나 실크 에디션에 이탈리아 프리미엄 ‘라디카’ 우드 트림과 가죽 스티어링 휠이 장착돼 있다. 그란루소 트림에는 열 두 방향으로 조작이 가능한 컴포트 시트,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전동 선블라인드, 주차 센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소프트웨어 클로징 기능이 추가된다.

뒷좌석은 3명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특징이다. 580 l의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하는 트렁크는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하는 데 제격이다.

르반떼 그란스포츠는 최고급 SUV에서 스포티한 매력을 찾는 운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카본 트림으로 마감된 스포티한 그란스포츠 인테리어는 12 방향 전동 조절 가죽 시트 및 전동 조절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갖췄다.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갖췄다.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갖췄다.

어린 휠에는 기어 시프트 패들과 ‘이녹스’ 스포츠 페달, 주차 센서,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다. 소프트웨어 클로징 기능은 옵션으로 적용 가능하다.

◇레이싱 감성의 탁월한 주행 성능

르반떼는 최첨단 3리터 V6 엔진을 탑재했다. 두 개의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과 경제적인 터보 디젤 엔진은 마세라티만의 시그니처 배기음을 만들어낸다.

V6 가솔린 엔진은 최신의 GDI와 트윈 터보 기어로 만들어졌다. 르반떼 S의 최대 출력은 430마력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5.2초, 최고속도 264km/h를 발휘한다. 디젤 모델은 커먼-레일 연료 직분사 방식의 V6 터보디젤을 채용하고 있다. 3리터 V6 엔진은 유럽연비측정방식(NEDC) 기준 9.7 km/l의 복합 연비를 유지하는 동안 최대 275마력, 제로백 6.9초, 최고속도 230km/h를 자랑한다.

8단 자동 변속기는 이번 모델에서 더욱 신속한 변속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돼 상황에 따라 강력한 엔진의 힘과 스로틀 반응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 새로운 2-레인 디자인의 8단 ZF 자동 기어박스는 직관적 사용성을 개선해 기어변속이 더욱 쉽고 신속해졌다.

‘Q4 사륜구동 시스템’도 르반떼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탑재됐다. 전자 제어 다판/슬립 클리지를 기반으로 한 Q4 시스템은 낮은 로드 그림에서도 마세라티의 전형적인 후륜 주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됐으며,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해 필요한 토크를 전문으로 전달한다.

이와 함께 동급 SUV 가운데 유일하게 기계식 자동 제한 장치를 뒤 차축에 장착해 어떤 주행 상황에서도 최대의 견인력을 보장한다.

◇첨단기술 탑재로 편안한 드라이브

르반떼의 새시는 기블리 및 콰트로포르테와 같이 우수성이 입증된 마세라티 세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했으며, 오프로드 파포먼스, 주행의 편안함과 실용성을 발휘하도록 개량됐다.

르반떼는 스포츠 기능에 중점을 둔 운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량 소재로 제작됐다. 차량 전후 무게를 50:50으로 완벽하게 배분할 뿐 아니라 동급 차량 대비 가장 낮은 무게 중심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르반떼는 럭셔리 SUV 세그먼트에서 필적할 수 없는 민첩함을 자랑한다.

아울러 르반떼는 유압식이 아닌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을 탑재했다.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은 편안한 핸들 조작, 다양한 주행 모드, 그리고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과 통합적으로 작동해 안전성을 높이고 날카로운 핸들링 경험을 선사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르반떼 그란루소

감각적인 쿠페형 디자인·5인승 넉넉한 실내공간
최첨단 3리터 V6 엔진 탑재...야외활동에 최적화
동급 차량 대비 가장 낮은 무게중심...민첩함 자랑



르반떼 듀얼

르반떼 그란스포츠